



제58장 무지달라

메디나에서 계시된 22절로 주로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이혼 형태, 그에 대한 보상, 비밀회담의 규범, 대화 및 회담에 있어서의 예의, 선지자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할 때 자선금을 내는 일, 하나님 적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슬람법과 위선자들 및 유대인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카울라 빈트 싸울라바」라는 여인의 남편에게 무지의 시대에 적용된 관습에 따라 금지되었던 이혼 문제를 시작으로 본 장의 계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 여인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남편의 학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남편이 저의 재산을 삼켜 버렸고 저의 청춘을 앗아갔으며 저는 저의 배가 커질 때까지 남편에게 제 자신을 바쳤으며 제 자식은 단절되고 그는 이혼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자 선지자께서 대답하시길, “그것은 금기된 것이라”고 하자 그녀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여! 남편이 저에게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선지자는 “그것은 금기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기원을 하였다. “주여, 제가 당신께 호소합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원에 그녀의 슬픔과 호소를 거두어 두시고,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셨나니...“라는 계시가 내려졌다. 또한 본장이 무지달라(변론, 논쟁...)라고 불리워지게 된 동기로도 볼 수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이혼에 대한 보상 규범, 비밀회담의 규범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증오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제 5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시¹⁾ 너희 쌍방간의 진술을 듣고 계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켜보심으로 충만하심이라²⁾

2. 너희 가운데 지하르¹⁾ 형태로 아내와 이혼하려는 자 있으나 그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될 수 없으며 낳아 준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머니들이 결코 될 수 없나니 실로 그들은 혐오스럽고 거짓된 말을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심과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

3. 그러나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취소할 때 그들은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늘¹⁾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دْ سَمِعَ اللَّهُ قَوْلَ الَّتِي تُجَادِلُكَ فِي زَوْجِهَا وَتَشْتَكِي إِلَى اللَّهِ وَاللَّهُ يَسْمَعُ مَا دُرُّكُمْ إِنَّ اللَّهَ سَمِيعٌ بَصِيرٌ ﴿١﴾

الَّذِينَ يُظَاهِرُونَ مِنْكُمْ مِنْ مَا لَهُمْ مَا مَنَ أُمَّهَاتُهُمْ إِنَّ اللَّعَنَةَ عَلَى الَّذِينَ يَفْعَلُونَ ذَلِكَ وَأَعْيُنُهُمْ الْغُلُوبُ ﴿٢﴾

وَالَّذِينَ يُظَاهِرُونَ مِنْ بَنَاتِهِمْ ثُمَّ يَعُودُونَ لِمَا قَالُوا فَتَحْرِيرُ رَقَبَةٍ مِنْ قَبْلِ أَنْ يَتَمَاسَا ذَلِكَ تَعَطُّونَ بِهِ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خَبِيرٌ ﴿٣﴾

1-1) 싸미아 : “들었다”는 언어 해석상의 뜻으로 본절에서의 “싸미아”는 듣고 그것을 수락하였다는 뜻까지 포함된다. 한편 잠카샤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감사하는 자의 모든 것은 항상 듣고 있다고 한다(타프씨르 알카샤-프 150/4).

2) 아우스 이븐 싸미드의 아내 카올라 빈트 싸울라바에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하여 계시되었음 (본장 서문 참조 및 제33장 4절 참조).

2-1) 지하르 :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려는 의도로, “당신은 나에게 제 어머니 등과 같이 내가 어머니 위에 있는 것이 금기인 것 처럼 당신위에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아니합니다”라는 말로 이혼을 하려했던 이슬람 이전 아랍사회의 관습이었다. 이 형태의 이혼 즉 지하르는 다음 4가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녀들 즉 아내들은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둘째,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

셋째, 그것은 위선이며 위증이고

넷째,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으로 볼 때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99절, 제22장 60절 및 죄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op. cit, p.328-329참조)

3-1)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규범이므로 믿는 신도들은 지하르를 버리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이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노예가 없는 자는 동참하기 전에 계속하여 두 달을 단식하게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는 굶주린 자 육십명을 배불리 먹이게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의 규범이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을 뿐이라¹⁾

5. 그들 이전의 선조들이 그랬듯 이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거역했던 자들은 멸망하게 되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한 예증들을¹⁾ 보냈나니 불신자들은 굴욕적인 응벌을 받게 될 것이다²⁾

6.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록하여 두셨거늘 그들이 그것을 망각했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인하시는 것으로 충만하심이라¹⁾

7.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셋 사이에 비밀 이야기가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네번째로

قَمْنُ كَرِهِيَدًا قَصِيَامُ شَهْرَيْنِ مُتَتَابِعَيْنِ مِنْ قَبْلِ أَنْ يَتَأَمَّنَا
مَنْ كَرِهِيَطِيمًا وَطَاعِمًا رِسْتَيْنِ وَسَكِينًا ذَلِكَ لِيُؤْمِنُوا بِاللَّهِ
وَرَسُولِهِ وَبِالَّذِي أُنزِلَ عَلَيْهِ مِنَ رَبِّهِ وَاللَّكْفِ مِنْ عَذَابِ الْآلِئِ ۝٤

إِنَّ الَّذِينَ يَحَادُّونَ اللَّهَ وَرَسُولَهُ كَذَبُوا كَمَا كَذَّبَ الَّذِينَ مِنْ
قَبْلِهِمْ وَقَدْ أَنْزَلْنَا آيَاتِنَا يَتَذَكَّرُ وَاللَّكْفِ مِنْ عَذَابِ مُؤْمِنِينَ ۝٥

يَوْمَ يَبْعَثُهُمُ اللَّهُ جَمِيعًا فَبَيِّنْ لَهُمْ بِمَا عَمِلُوا أَحْصَاهُ اللَّهُ
وَرَسُولُهُ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شَهِيدٌ ۝٦

أَلَمْ تَرَ أَنَّ اللَّهَ يَعْلَمُ مَا فِي الْأَرْضِ وَإِنِّي الْأَرْضِ مَا يَكُونُ مِنْ
تَحْتِهَا شَيْءٌ إِلَّا أَعْرَفَهُمْ وَأَخْبَسَهُ إِلَّا أَعْرَفَهُمْ وَلَا أَذُنٌ
مِنْ ذَلِكَ وَلَا أَلْفُ الْأَعْمَعِ مِنْ آيِنٍ مَا كَانُوا ثُمَّ يُنَبِّئُهُمْ بِمَا عَمِلُوا

4-1) 지하르를 취소한 자가 부인과 동참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가 없을 경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사서라도 해방시키는 일
둘째,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 계속하여 2개월간 단식을 행하고
셋째, 제1항 및 제2항이 병환이나 노쇠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경우 60명의 불우한 사람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계시하고 있다(제4장 92절 참조 및 비교).

5-1) 허락된 것(할랄)과 금지된 것(하람)이 있으며 의무사항(파라이드)과 규범(아흐카)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메카 불신자들이 분파를 일으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려 하였을 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9).

6-1) 제5장 51절, 108절 및 60절, 제9장 94절 참조

계시며 넷 사이에는 다섯번째로 계시며 그보다 적지 아니하고 많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던 항상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심판의 날 그들 행위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8. 비밀의 모임이 금기된 그들을¹⁾ 보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그들은 금기된 것으로 돌아가 선지자에 대한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모임을 가진 후 그들이 그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그대를 맞이하지 않는 인사로써 그대를 맞이하더라²⁾ 그리고 스스로들 말하길 우리의 얘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벌하지 않느뇨 라고 하였으나 지옥만으로 그들에게는 충분하나니 그 안에서 그들은 불타게 되매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뇨

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모임을 가질 때 선지자에 대하여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대화를 하지 말며 진리와 의로움의

يَوْمَ الْقِيَامَةِ إِنَّ ا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٥٠﴾

أَلَمْ تَرَ إِلَى الَّذِينَ نُهُوا عَنِ الْجَمْعِ ثُمَّ يُؤَدُّونَ لِمَا نُهُوا عَنْهُ وَيَسْتَجِونَ بِالْآثِمِ وَالْعَادُونَ وَمَعْصِيَتِ الرَّسُولِ وَإِذْ أَوْحَىٰ إِلَيْكَ رَبُّكَ بِمَا تُرِيدُكَ بِاللَّهِ وَيَقُولُونَ فِي أَنفُسِهِمْ لَوْلَا يُعَذِّبُنَا اللَّهُ بِمَا نَقُولُ حَسْبُهُمْ جَهَنَّمُ يَصَلُونَهَا فِئْسَ الْمَصِيرُ ﴿٥١﴾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تَنَاجَيْتُمْ فَلَا تَنَاجُوا بِالْآثِمِ وَالْعَادُونَ وَمَعْصِيَتِ الرَّسُولِ وَتَنَاجُوا بِالْإِزْوَالِ وَالْتَقْوَىٰ

8-1) 유대인과 위선자들로 그들은 그들끼리 비밀모임을 갖고 믿는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간에 눈짓을 하자, 믿는 신도들이 이를 선지자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선지자께서 그것을 금기하자 그래도 그들 유대인과 위선자들이 음모의 모임을 계속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꾸르부비”는 해설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부비 291/17).

2) 그들 위선자들은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게 “앗랄라무 알라이쿰” 대신에 “앗싸-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하였다. 유대인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와서 “앗랄라무 알라이쿰”(당신께 평안이 깃드소서)라는 평안의 인사대신 “앗싸-무 알라이쿰”(당신께 죽음이 있기를!)이라는 저주의 인사를 하였다. 그때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인사하길 “와 알라이쿰”(그리고 당신들 위에도)라고 만 인사하고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부인 “아이샤”가 어느날 “알라이쿰 아싸-무 와 라오나”(당신에게는 죽음과 저주가...)라고 하자 그들 위선자들은 떠나버렸다. 그때 선지자께서 아이샤에게 말하길, “서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러운 말을 싫어하오”라고 하자 부인께서, “그들이 무어라 말한지 아십니까?”라고 하자, 선지자께서 부인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어라 말했는지 듣지 아니했소? 나는 단지 와 알라이쿰(그리고 당신들 위에도...)라고만 했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라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라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했소”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10).

모임을 가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10. 비밀의 음모는 오직 사탄의 행위로 믿는 사람들을 슬프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그들을 해칠 수는 없노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탁하도록 하라¹⁾

11.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회중에 공간을 두라 얘기를 들을 때면 공간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리라¹⁾ 그리고 일어서라 말을 들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에게²⁾ 더 높은 곳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2.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선지자와 의논을 할 때 의논하기에 전에 자선으로 무엇인가를¹⁾ 베풀지니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은혜요 더 깨끗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할

وَاتَّقُوا اللَّهَ الَّذِي إِلَيْهِ تُعْشَرُونَ ﴿١٠﴾

إِنَّمَا الْعِبَادَةُ مِنَ الشَّيْطَانِ لِيَحْزُنَ الَّذِينَ آمَنُوا وَلَيْسَ بِضَرِّهِمْ شَيْئًا إِلَّا بِإِذْنِ اللَّهِ وَعَلَى اللَّهِ قَلْبُتَوَكَّلِ الْمُؤْمِنُونَ ﴿١١﴾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قِيلَ لَكُمْ تَسْتَحْضِرُوا فِي الْمَجْلِسِ فَأْتُوا بِيَسْتَسْمِعِ اللَّهُ لَكُمْ ۖ وَإِذَا قِيلَ انشُرُوا فَانشُرُوا وَابْتَغِ اللَّهُ الَّذِينَ آمَنُوا مِنْكُمْ وَالَّذِينَ أُوتُوا الْعِلْمَ دَرَجَاتٍ ۗ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خَبِيرٌ ﴿١٢﴾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تَابَعْتُمُ الرَّسُولَ فَقَدِّمُوا بَيْنَ يَدَيْكُمْ صَدَقَةً ذَلِكُمْ خَيْرٌ لَكُمْ وَأَطْهَرُ ۚ وَإِن كُنْتُمْ عَدُوًّا وَإِن كُنْتُمْ عَفْوًا فَارْحِمُوا ﴿١٢﴾

10-1) 너희가 셋이라면 둘이지만 의논하지 말고 너희 둘의 한 친구와 함께 하라. 그렇게(둘이지만 의논)한다면 그것은 그(친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부카리와 무슬림의 전함).

11-1) 사람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모임에서 앓을 좌석에 대한 것으로 만나뵈음을 하고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되었다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타프씨르 알꾸르투비 296/17) "카지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과 겸양을 명령하시 선지자 옆에 앉아 영광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를 넓혀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 - 진 50/4). 하디쓰에서는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그곳에 앉아서는 아니되며 자리를 넓혀 같이 앉아야 하니라"(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식이 있는 자가 학식이 없는 하인보다 낫거늘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위에 떠오른 온달과도 같도다" 또한 하디쓰에서는 "심판의 날 3가지가 중재되나니 : 선지자들과 학자(울라마)들과 순교자(슈하दा)들이다"(타프씨르 알꾸르투비 300/17)

12-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금(사다카). 이 사다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자와 위선자들과 구별이 되며 현재의 사랑과 내세의 사랑을 구별시켜 준다(타프씨르 알울무씨 30/28).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13. 너희는 그분과¹⁾ 의논하기 전에 자선을 베풀 수 없으리라 두려워 하느뇨²⁾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나니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4. 그대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자들과 함께 한 그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그들은 너희편도 아니며 그들편도 아니며 그들은 알면서도 거짓 맹세하고 있을 뿐이라

15.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서운 응벌을 준비하셨나니 실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저주가 있으리라

16. 그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숨기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니 그들에게는 굴욕적인 응벌이 있을 뿐이라

17.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자산도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불지옥의 동료가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ءَأَسْقَفْتُمْ أَنْ تُكْفِرُوا بَيْنَ يَدَيِ نَجْوَىٰكُمْ صَدَقْتُمْ وَآذَانُكُمْ
تَفْعَلُونَ وَأَتَابَ اللَّهِ عَلَيْكُمْ فَ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وَاطِيعُوا اللَّهَ وَرَسُولَهُ وَاللَّهُ حَيُّ ذِي الْعَرْشِ الْعَلِيِّ ۝۱۳

الَّذِينَ كَفَرُوا الَّذِينَ تَوَلَّوْا قَوْمًا غَضِبَ اللَّهُ عَلَيْهِمْ مَا هُمْ بَيْنَكُمْ وَلَا
مِنْكُمْ وَيَخْلِفُونَ عَلَى الْكَذِبِ وَهُمْ يَعْلَمُونَ ۝۱۴

أَحَدَ اللَّهِ لَهُمْ عَلَيَّا شَيْءٌ يَدِ الْأَعْتَمِ سَاءَ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۱۵

رَبَّنَا وَأَنْبِيَاءَهُمْ كَذَبُوا فَصَدُّوا عَن سَبِيلِ اللَّهِ فَاهْرَبْكَ
مُهَيْمِينَ ۝۱۶

لَنْ نُنْفِقَ عَنْهُمْ أَمْوَالَهُمْ وَلَا أَوْلَادَهُمْ مِنَ اللَّهِ شَيْئًا أُولَٰئِكَ
أَصْحَابُ النَّارِ هُمْ فِيهَا خَالِدُونَ ۝۱۷

13-1) 선지자

2) "믿는 신도들에 대한 충고로써 그렇게 할 수 없애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시니 이로 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리라"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14).

18-1) "하나님께 맹세하시 저희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현세에서 그들이 거짓했듯이 심판의 날에도 그러한 거짓말을 하려 하나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응벌을 더하여 줄 뿐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세르 알꾸르투비 305/17).

18.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어느날 그들은 너희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맹세하여 무엇인가 얻으리라 생각하더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매 그들은 거짓하는 자들에 불과하니라¹⁾

19.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케 하더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로 사탄의 무리는 멸망하게 되니라

20.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

21.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나니 나와 그분은 선지자들이 승리하리라 말씀이 있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22. 그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이던¹⁾ 아들이던²⁾ 또는 형제들이나³⁾ 친척들이던⁴⁾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리라⁵⁾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영혼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يَوْمَ يَبْعَهُمُ اللَّهُ جَبْرِائِيلَ عَلَيْهِ السَّلَامُ لَمْ يُبْعَثُوا لَكُمْ
وَيَحْسِبُونَ أَنَّهُمْ عَلَىٰ شَيْءٍ أَلَّا أَنزَلْنَاهُمْ هُمُ الْكَذِبُونَ ﴿١٨﴾

إِسْتَحْوَذَ عَلَيْهِمُ الشَّيْطَانُ فَأَنسَهُمْ ذِكْرَ اللَّهِ ۗ أُولَٰئِكَ حِزْبُ
الشَّيْطَانِ ۗ أَلَا إِنَّ حِزْبَ الشَّيْطَانِ هُمُ الْخٰسِرُونَ ﴿١٩﴾

إِنَّ الْكٰذِبِينَ يَحٰذِرُونَ اللَّهَ وَرَسُولَهُ ۗ أُولَٰئِكَ فِي الْاٰذٰلِكِينَ ﴿٢٠﴾

كَتَبَ اللَّهُ لَأَعْلَيْنَ ۗ اِنَّا وَاَرْسَلْنَا اِنَّ اللَّهَ قَوِيٌّ عَزِيْزٌ ﴿٢١﴾

لَاقِحًا قَوْمًا يُّؤْمِنُو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اٰخِرِ وَاُوْدُونَ مِنْ حَادِّ اللَّهِ
وَرَسُولِهِ ۗ لَوْ كَانَ الظَّالِمَةُ اَبَاءَهُمْ ۗ اَوْ اَبْنَاءَهُمْ ۗ اَوْ اِخْوَانَهُمْ ۗ اَوْ عَشِيْرَةً
اُولَٰئِكَ كَتَبَ فِيْ قُلُوْبِهِمُ الْاِيْمَانَ وَاَيَّدْنَاهُمْ بِرُوحِنَا ۗ وَيُرِيْنَاهُمْ
حَدِيْثَ نَبِيِّنَا مِنْ حَتْمِ الْاَنْهٰرِ ۗ يَلْبَسُوْنَ فِيْهَا رِجَالُهُمْ
وَرَضُوْا عَنْهُ ۗ اُولَٰئِكَ حِزْبُ اللَّهِ ۗ اَلَا اِنَّ حِزْبَ اللَّهِ هُمُ
الْمُفْلِحُونَ ﴿٢٢﴾

22-1) 바드르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 자라하를 살해한 "아비 우베이다"에 관해서 계시되었고
 2) 아부 바크르의 아들 압두 라흐만 살해에 관해 계시되었고
 3) 그 당시 우메이르 아들 우베이드 형제를 살해한 "무스이브 이븐 우메이르"에 관해 계시되었 으며
 4) 바드르 전투에서 우뜨바, 샤이바, 란리드 이븐 우뜨바를 살해한 함자, 알리 및 우베이다 이븐 하디쓰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67/3).
 5) 비록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같이 살아온 형제 또는 친척 또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일 경우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이 같이 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과 미움에 한 마음안에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게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며 그들은 그
곳에서 영생하노라 이에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과
기뻐하니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회에 있노라 실로 하나님의 당
안에 있는 그들이야말로 변성할
자들이라